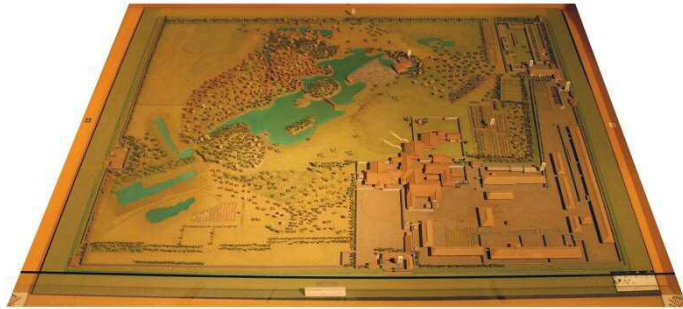


## 다이묘 저택과 매사냥터

### 호소카와 가문의 저택

1662년, 구마모토번(지금의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주변)의 호소카와 가문은 막부로부터 토지를 받아, 그곳에 저택을 지었습니다. 승마장에서 동쪽과 서쪽



정원으로 나뉘는데, 동쪽은 건물에서의 조망을 중시한 정원, 서쪽은 산책을 목적으로 한 정원으로, 1671년에 완공했습니다. 이 모형은 지금의 도쿄시 공원(도쿄도 시나가와구 유타카초 2-1)을 포함한 동쪽 정원(약 11만㎡)을 복원한 것입니다.

### 에도 근교의 매사냥터

에도 시대, 시나가와 지역에는 쇼군의 매사냥터가 있었습니다. 매를 풀어 놓고 새나 작은 동물을 포획하는 매사냥은 동물보호령\*이 내려졌던 시기를 제외하고, 활발히 행해졌습니다. 1725년에 에도 주변의 매사냥터가 재정비되어, 에도를 중심으로 약 20km 사방의 마을들이 6개의 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시나가와 구역의 마을들은 6개 지역 중 메구로라는 지역에 속했습니다.

\*동물보호령: 1687년, 도쿠가와 막부의 제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가 공포한 법령. 동물을 소중히 할 것을 명했습니다.

도카이지 절에 전래되는 고분의 출토품

다이묘 저택이 많이 지어진  
고텐야마 주변은  
대지(臺地)로 되어 있어  
옛날에는 고분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카이지  
절의 기록에는



가에이 7년(1854)에 시나가와 앞바다에 포대를 축조할 당시에 매립 재료의 흙을 채취하기 위해 언덕을 깎았더니 유물이 출토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분큐 2년(1862)에 영국 공사관을 건설할 당시에 고분의 석실과 인골이 출토되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시 자료는 그 내력이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의 발굴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형 에마(繪馬)\*

저명한 화가가 그린 대형 에마를 사원이나 신사에 봉헌하는 관습은 무로마치 시대 중기(15세기 중기)에 생겨났습니다. 에도 시대 초엽(17세기 전기)까지는 대형 에마 봉헌자는 부유한 상인 등에 한정되었으나, 에도 시대 중기(18세기 전기) 이후, 서민에게까지 이 관습이 퍼졌습니다. 하타가오카 하치만 신사, 도고시 하치만 신사, 가이운지 절 등 지금의 시나가와구 내의 많은 사원과 신사에는 봉헌된 대형 에마가 다수 남아 있습니다.

\*에마(繪馬): 나무 판자에 말을 그려서 사원이나 신사에 봉헌한 것.

옛날에는 말을 신성한 존재로 여겨 진짜 말을 봉헌하기도 했는데, 차츰 말 모형을 봉헌하게 되었고, 이윽고 에마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1\_06\_01



서양견의 골격 표본

만지 3년~쇼토쿠 원년(1660~1711)

경

쇼와 62년(1987) 센다이자카

유적(히가시오이) 출토

센다이 번(현재의 미야기현 센다이시

주변) 다테 가문 저택(현재의 도쿄도

시나가와구 히가시오이 4 초메)의

바깥 해자에 매장되어 있었던 서양견

중 한 마리로 셰퍼드보다 약간 큰

수컷입니다. 제 3대 번주 다테

쓰나무네가 은둔해 있던 시기에

키웠던 개라 추측됩니다. 성견이데도

이빨이 닿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드러운 음식물을 주며 소중하게

길렀다고 추측됩니다. 이러한

서양견의 뼈는 센다이번의

저택터(도쿄도 미나토구의 시오도메

유적)에서도 출토되었습니다.

1\_06\_02



스에키 토기 - 굽다리 그릇

6 세기 전반

도카이지 절 소장, 당관 기탁  
음식물을 담는 데 사용되었다고  
추측되는 그릇입니다.



1\_06\_03



원통형 토옹

6 세기 후반

도카이지 절 소장, 당관 기탁  
고분 주위에 세웠던 원통형  
토옹입니다.

<p>1_06_04</p> 	<p>스에키 토기 - 손잡이가 달린 병</p> <p>6 세기 중엽</p> <p>도카이지 절 소장, 당관 기탁</p> <p>액체를 넣어 운반했습니다.</p>
<p>1_06_05</p> 	<p>도카이지 절의 경계 표지석</p> <p>17 세기 이후</p> <p>에도 막부의 제 3 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가 선종(禪宗)※ 승려 다쿠안 소호를 초빙하여 건립한 도카이지 절에 설치된, 경계를 표시하는 돌로 소재는 안산암입니다. 돌담 등에 사용하는 석재와 마찬가지로 사각뿔 모양으로 가공했습니다. 에도 시대, 도카이지 절의 광대한 영지의 주요 경계 부분에 설치했던 표지석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p> <p>※선종(禪宗): 좌선(坐禪)을 통해 도를 깨닫고자 하는 불교 종파.</p>

1\_06\_06



하타가오카 하치만 신사 대형  
에마(복제)

원사료: 하타가오카 하치만 신사  
소장

시나가와구 지정 문화재

겐지 원년(1864) 10 월에

나카노부무라 마을의 다케야

기치지로가 봉납한 큰 에마(발원을

할 때나 소원이 이루어진 사례로

신사 등에 봉납하는 말을 그린 액자).

도사노쿠니(현재의 고치현) 출신의

오키 간가쿠가 그린 사찰에 봉납하는

말을 원승이가 원에 봉헌하는 말을

끄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